

# 정체성 위기와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 타이완과 필리핀의 사례 비교\*

김성건·박희·이현석·최유식·황선주\*\*

## I. 서론

최근 교통과 정보 통신망의 발달에 의해 촉진된 '세계화'(globalization)를 계기로 문화접변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용자의 의식과 태도가 문화양식의 전개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중요한 관건이 됨을 말해준다. 지난 1997년 9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언론허브 포럼'은 정보혁명시대의 다양한 문화침투에 관심을 모았다. 이 포럼의 참석자들 가운데 필리핀 「스타」의 발행인인 맥시모 V. 솔리벤은 "필리핀은 과거 수백 년간 스페인의 통치아래 있다가 현재 미국 할리우드(Hollywood)의 지배아래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 문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비교적 타이완이 미국 등 서양 문화의 공세로부터 성공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같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한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 중점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김성건(서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박희(서원대 사회교육학부 부교수), 이현석(서원대 법학과 부교수), 최유식(서원대 경제학과 교수), 황선주(서원대 영어중문학과 부교수)

바 있다(중앙일보 1997/9/9).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이완과 필리핀에 대한 '서구—특히 미국—대중문화'의 침투양상과 그 흡인력의 정도를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동남아시아의 타이완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대중문화 수용패턴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의 확보를 위해 정부측이 서구문화를 그 동안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던 타이완과 오랜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 뒤 미국문화의 지배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미국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문제가 야기된 필리핀은 전형적인 대비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문화체계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체계의 요소가 기존의 문화요소들과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접변의 틀/framework)은 베리(J. W. Berry, 1980)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통합(integration)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identity)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의 바람직한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이며, (2) 동화(assimilation)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3) 분리(separation)란 자기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들을 배격하는 것이며, (4)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기의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그런데 서구 대중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정을 추적해 볼 경우, 탈 식민지 사회상황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결합된 '강제적 문화접변' 보다는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자발적 문화접변'이 이루어지면서 서구 문화로의 동화현상이 강

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서구 대중문화가 흡인력을 발휘하며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태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 결과 기존의 문화체계들과 달리 제3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문화융합'(cultural fusion)이나, 한 문화체계가 변형되어 다른 문화체계로 접근하는 '문화동화'(cultural assimilation)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을 계기로 서구 대중문화가 파괴적 흡인력을 더 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문화접변과정에서 서구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국가들의 문화적 수용역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접변 양상과 그 결과들은 각 사회가 겪는 '문화적 조우 경험'(cultural encounter experience)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① 역사적 경험요인, ② 체제유형과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③ 문화정책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는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상황과 '문화변용'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문헌자료의 내용 분석 방법 외에 참여관찰과 심층면접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의 대상에는 현지 방송국장,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YMCA 대표, 현지 교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을 객관화하기 위해 서구 대중문화의 주요 수용층이라 볼 수 있는 필리핀과 타이완 양국의 국립대학 학생들 각 120여 명을 대상으로 1999년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구대중문화의 수용 및 향유패턴을 비교하였다. 설문지를 수거한 연구대상 인원은 필리핀이 96명이었고, 타이완은 83명이었다. 표본은 확률표집은 아니지만 양국의 경험을 대비시킬 수 있는 대상집단을 설정하여 할당표집을 통해 추출하였고, 통계결과는 SPSS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수적으로 제한된 표본집단이라는 문제 외에도 필리핀과 타이완 양국에서 엘리트층인 대학생 집단이 갖는 '대표성'에 일정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구의 평균적인 대표적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

리핀의 특정 대학생집단 표본과 타이완의 그에 상응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응시켰음을 밝힌다.

## II. 이론적 논의: 글로벌리제이션과 서구대중문화에 대한 재인식

### 1. 글로벌리제이션과 문화적 각축: 문화적 제국주의를 넘어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이란 말은 1990년대 들어 갑자기 유행하게 된 것이 사실인데, 하나의 개념으로서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세계의 압축 그리고 전체로서 세계라는 의식(意識)의 강화 이 양자를 모두 일컫는 것”(Robertson, 1992)이다. 그런데 세계적 사회학자 기든스(A. Giddens 2000)가 「질주하는 세계: 세계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에서 설득력 있게 잘 펼쳐 보인 주장처럼, 오늘날 ‘세계화’는 ‘경제적’ 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고, ‘기술적’ 이며, 특히 ‘문화적’ 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8년 4월 2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전 세계에서 140개의 회원국가가 참여하여 나흘동안 열린 스톡홀름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화’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의 다원주의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동아일보 1988/4/4).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잘 지적했듯이 “세계화는 문화적 단일성(동질성)을 낳고 궁극적으로 문화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어두운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기구는 “세계적인 거대 매스미디어가 각국 및 지역문화에 ‘위협’ 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톡홀름회의가 ‘문화정책’ 을 개발전략의 핵심으로 채택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세계화의 흐름이 문화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평가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박영은 1995: 99). 하나

의 시나리오는 위에서 지적했던 흐름들을 반영하며, '문화제국주의 테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으로서 개별 문화의 탄력적 자생력 유지에 초점을 모으는 '민족문화의 응집성 테제'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문화제국주의 테제'는 그 동안 전(全)세계적 공간영역으로 확장된 산업화와 결부되어 문화영역에서 '대중문화'(mass culture)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서구의 대중문화가 비물질적 요소(취향, 디자인, 패션, 포장 등)에서 출발하여 상이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박영은 1995: 106). 디즈니월드(Disney Worlds), 빅맥스(Big Macs) 등과 같은 초국적 소비문화는 다양한 언어, 지방적 사고, 지역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단일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의 선전광고 등의 영상언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Hall 1991: 19-39). 더구나 서양 강대국(특히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화와 초국가적(transnational) 발전에 의해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상징과 그 형태들이 약소국에 수입되어 주민들의 감성세계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 곧 '민족문화의 응집성 테제'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도입된 문화형태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민족문화와 지역문화에 의해 포섭되어 자국의 문화양식에 의해 소화되리라는 주장을 펴는다.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의 문화영역들 가운데 어느 문화도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을 찾기 힘들다는 역사적 경험들을 그 근거로 제기하며, 모든 문화가 다른 문화와의 접변과정을 통해 고유양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범세계화라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하에서 각 민족과 국가의 독특한 문화는 현재 크게 보아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문화의 응집성 테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 잠재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제국주의 테제'(지구촌의 문화적 '동질화')와 '민족문화의 응집성

테제' (지구촌의 문화적 '이질화')로 엮어진 두 가지 시나리오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문화적 세계화' (cultural globalization) 또는 '글로벌 패러독스' (global paradox)란 한편으로는 서구 — 특히 미국 — 중심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전(全)지구적 소비문화의 '동질화'의 흐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 언어, 종교, 예술 등의 독특성을 주장하려는 열망이 증가하는 '민족화' (nationalization) 혹은 '지방화' (지역화, localization)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Spybey 1996: 112-116). '세계체계' (world system)가 점차 발전하고 문화의 '초국화' (transnationalization)라는 발상이 생겨나고 있지만(박영은 1995: 107), 그것은 결코 단일적이고 통일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극적 편향성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각축지형 속에서 한 사회의 '집합적 정체성' (collective identity)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사회의 집합적 정체성은 외적 조건(경제의 세계화, 대중매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에 의해 완전히 각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절대시하게 되면 문화의 맥락성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는 세계화의 '복음'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당시의 특수한 경험과 기억을 근거로 해석하며 또 행위에 적실한 의미내용을 부여하게 된다. 그들은 당시의 특수한 민족적 욕구와 요청에 비추어서 문화형태를 변용한다. ... (문화접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회는 그것들의 맥락과 자리매김을 바탕으로 집합적 주체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박영은 1995: 116).

따라서 최근 미디어 학계가 주장하듯이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은 '경제적'인 동력(역학, dynamics)과 '문화적'인 동력 양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Du Gay 1997: 44-45), 그것은 문화간 '대립', '경쟁' 및 '절충' 등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각축이라는 측면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다시 강조하지만 문화적 세계체계에서 관건은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집합적 주체형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배경

미국 중심의 서구 대중문화가 지니는 파괴력 흡인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영역에서의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의 회장인 마이클 아이즈너(Michael Eisner 1995)에 따르면, 일년에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디즈니 영화 또는 홈 비디오를 시청하며, 약 4억 가량의 사람들이 매주 디즈니 TV 쇼를 보고 있고, 약 2억 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디즈니 음악, 레코드, 테이프 또는 컴팩트 디스크 등을 듣거나 그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2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50개국에서 디즈니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문화산업의 전 세계적 인기는 바로 미국 대중문화의 보편적 매력을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다. 항공기 산업과 함께 미국의 문화산업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에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비서구 사회들에서 서구 대중문화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나 그 관련 산업 — 음악과 대중미술 — 으로 이해된다. 서구 대중문화는 서부유럽의 대중문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셈이다. 현재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전 세계의 연간 영화제작 편수 중 고작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미국산 영화가 전 세계 영화관의 흥행 수입 중 무려 65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를 비롯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가운데 최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를 열 편 고를 경우 미국 영화가 적어도 일곱 편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산업이 비교적 발전해 있는 비서구 사회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 인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 브라질은 텔레비전 영화 제작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국에서 영화관

객, 음악 청취자 및 TV 시청자의 다수는 미국 오락물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홈 비디오 부문에서도 물론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영화산업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강력한 '문화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Guerlain 1997).

“미국의 대중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디즈니사 회장 마이클 아이즈너(Eisner 1995)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 내는 물론 그리고 세계의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대량의 영어 언어 시장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로 하여금 영어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불어나 독어 시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제작과 관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게 한다.

둘째,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미국은 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소유할 기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기회, 개인의 선택 및 개인적 표현의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문화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들을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원한다.

셋째, 방해받지 않는 창조의 자유가 존재하는 결과 미국 오락산업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창조성을 만들어낸다. 창조성은 관심을 끌고,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팝문화, 즉 대중문화의 본질이다. 동질적인 사회들과는 달리 종족 면에서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창조성이 표출되는 현상에 중요한 방식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넷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필름 및 가족오락 제품들의 특별한 매력은 순진성(천진난만한)의 전파적(감염적) 매력으로부터 나온다. 세계의 아이들은 그들이 자라나는 각 사회로부터 완전히 주조되기 전에 모두가 순진성과 개방성을 함께 공유하기 마련인데, 분명히 디즈니 캐릭터들(characters)은 이 아이들의 심금(心琴)을 울린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지배와 문화적 지배 사이의 연관관계를 주목하는 한



학자(Guerlain 1997)는 미국 대중문화의 확산배경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모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경제적 외투의 발자국 속에 종종 뒤따르게 되는 것이 경제대국의 문화이다. 영화, 음악, 패스트 후드(fast food)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부문에서 미국이 세계적 지배를 이루게 된 것도 그 본질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디즈니사의 아이즈너는 이른바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란 말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의 경우 최근 들어 이전에 정부의 규제를 받던 두 개의 방송사를 없애고 그 대신 규제를 전보다 덜 받는 다섯 개의 방송사를 허가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수십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 같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규제를 줄인]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오락물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된다. 사담 후세인(Sadam Hussein)이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마이 웨이"("My Way")를 그의 54회 생일 파티에서 주제가로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력의 결과는 아니었다(Eisner 1995: 10).

그러나 아이즈너의 논의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확실히 언어와 관련된 시장접근의 용이성, 자유와 창조성, 그리고 순진성의 전파적 매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자극하는 유인이 된다. 그렇지만 그의 논의는 미국 대중문화가 흡인력을 지니게 된 조건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소비문화를 자극하는 미국 문화산업의 전략적 측면이 가려져 있다. 그가 강점으로 지적한 미국의 대중문화에는 문화상품의 소비를 자극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즈너의 견해를 따른다면 확실히 미국 대중문화

의 전파력은 “문화적 제국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되새겨보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능력압력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주체적 수용태도에 따라 그 방향과 강도가 규정될 수 있는 문화적 각축의 한 단면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 3. 미디어 글로벌화와 아시아의 미국화 명제에 대한 재평가

서구(특히 미국) 대중문화 자체의 매력 또는 흡인력과 더불어 그 확산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주목되어야 할 또 다른 조건이 ‘미디어의 글로벌화’(media globalization)이다(허만·맥체스니(Herman & McChesney), 1999: 265). ‘미디어 글로벌화’의 주된 특징은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상품 흐름의 규모확대, 미디어 초국적 기업의 성장 및 미디어 통제의 집중화 경향, 그리고 상업화의 심화·확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글로벌화’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기업들의 과점화 현상이다. 따라서 “동양에서 승리한 글로벌 미디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과 그 전지구적 동맹들이 곧 세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케인(Alan Cane 1996)의 주장은 일부에서 ‘아시아의 미국화’(Americanization of Asia)라는 명제를 불러일으킬 만큼 의미가 있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예전의 산업자본주의를 추진한 결속이 강하고 동적인 국가로부터 현재는 자유로운 시장과 탈 규제의 경제로 전이(轉移)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이는 단순히 경제적 변동만이 아니라 가치, 사회적 및 개인적 관계 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마디로 ‘문명적 변동’이라 볼 수 있다(Petras 1998).

그러나 한편, 점증하는 ‘미디어 세계화’가 초래하는 ‘동질화’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들(Wang 1997; Sepstrup & Goonasekera 1994)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오

늘날 '미디어의 세계화'를 대표하는 미국 주도의 위성 텔레비전은 해당 지역의 민족문화들을 집어삼키는 것 대신에 그 자체가 세계 각 지역의 기호에 민감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Shawcross 1995). 아울러 '미디어 세계화'가 동질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서조차 그것은 이 미디어를 수용하는 청중 속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특수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s)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에서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구축하려는 바람이 감퇴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문화들의 통합과 해체 속에 포함된 '복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확실히 글로벌리제이션의 효과는 해당 국가의 크기와 국력, 그리고 전통문화의 힘과 결합력, 언어적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당연히 그 강도 및 속도에 차이가 난다(허만·맥체스니 1999: 292). 미국을 위시하여 몇몇 선진국가들은 능력압력을 지니며 대중문화의 수출국이 될 것이지만, 아시아 등의 약소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효과를 주목할 경우, 내부 저항세력에 따라, 계급에 따라, 침잠된 시간 길이에 따라, 외부 침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범 아시아권 텔레비전 서비스를 건설하려던 MTV의 계획이 공통된 문화적 특성의 부족으로 좌절된 후 지역별로 그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지역음악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Geddes 1994).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가 위력을 발휘하며 '아시아의 미국화 현상'이라는 지배적인 흐름을 만들어놓고 있지만<sup>1)</sup>,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회에서 문화 요소들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아시아의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패턴들을 견주어보는 경험적 연구가 더욱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1) 대중문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일부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서구도 사실 미국 대중문화의 침투력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아시아가 아니라 전세계의 미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셈이다.

제 필리핀과 타이완을 대상으로 그러한 탐사작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 Ⅲ. 필리핀과 타이완의 역사·문화적 지형

#### 1. 필리핀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문화정책

##### 1) 필리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

스페인의 진출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열도에는 통일제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국가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통일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지형학적으로 통일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고, '바랑가이'라는 소규모 공동체가 유일한 공식조직단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느슨한 환절적 통합형 사회를 이루면서 몬순기후의 열풍으로 말레이와 인도, 그리고 중국과 이슬람의 문화를 수용하여 융해시킨 독특한 문화양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토착 전통문화는 아시아적 문화전통의 '합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박희 1999: 2000).

그러나 1521년 별다른 저항 없이 필리핀에 입성한 스페인은 1571년부터 총독을 파견하여 1898년까지 경제적 수탈과 강제적 문화접변 과정을 통해 '필리핀의 스페인화'를 도모하였으며, 필리핀인들에게 '식민지적 심성'(colonial mentality)을 착종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은 식민지 초과이윤의 수취를 은폐하기 위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감리교가 규율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노동자들에게 주입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Thompson 1966), 가톨릭은 필리핀의 당면한 민족 모순을 은폐시키고 집합적인 저항의 이념을 상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스페인을 대신하여 다시 약 40여 년 간 이루어진 미국의 필리핀 지배 과정에서도 식민지적 심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되었다. 물론 미국의 식민지배는 스페인의 통치방식과 상당히 달랐다.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과정

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제한적이거나 자발적 문화접변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고, 근대적 교육을 확산시키는 등 유흥적 식민지배 전략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미국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문화에 각인된 미국 식민지배 하에서의 문화적 경험은 필리핀의 문화지도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 병합과 접변을 계기로 서구문화에의 동화현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국 그람시(A. Gramsci)가 지적한 헤게모니의 창출, 곧 '동의에 의한 지배'가 필리핀에서는 식민지적 심성의 착색과정과 연결되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따라서 스페인과 미국 양국은 도합 4백년 가량의 오랜 기간 동안 필리핀에 식민세력으로 존재하였던 셈인데, 이는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필리핀 문화정체성의 위기를 가져다 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마르크스의 부인인 이멜다 여사의 강연원고를 줄곧 작성해주었던 칼멘 구에레로-낙필(Carmen Guererro-Nakpil)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Economist* 1992: 38).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필리핀은 수도원이었다. 미국의 지배하에서 필리핀은 할리우드였다. 이제 필리핀은 무엇이 될 것인가?

확실히 이 인용구에는 필리핀이 인내와 복종의 미덕을 상징하는 '수도원'에서 벗어났지만 할리우드의 영화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새로운 식민지적 심성을 자극하는 최면제로 작용하였다는 자각과 한탄이 담겨 있다. 대중문화는 현실도피적 상황을 뇌리에 심어주는 동시에 암울한 현실을 잊고 대리만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필리핀의 미국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독립 후의 정치·경제적 대미 종속성과 맞물려 관성을 지니며 필리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 2) 필리핀의 문화정책과 문화적 지형

필리핀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을 선도한 국가는 미국으로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필리핀의 문화정책은 미국 중심의 서구 대중문화에 대해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서구적 대중문화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가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대중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과급력을 지녔던 매체는 신문과 잡지보다 라디오였으며, 필리핀에서 그것은 TV의 영상문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체로 서구에서는 라디오 드라마가 1960년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필리핀에서는 라디오와 TV가 내용과 형식면에서 쌍두마차를 이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아래 영화와 연극이라는 매체에 익숙해 있었던 필리핀인들에게 이 새로운 매체들이 가세함으로써 대중문화는 삶의 일부로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문화는 사실상 독립 이전의 식민지적 심성과 연결되어 지배 이데올로기의 활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평가되던 필리핀의 자본가 계급들이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라마를 대중들에게 먹이면서 현실을 왜곡시켰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되었다(Nofuente 1986). 즉, 드라마는 사랑놀이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빈자들의 삶이 평화롭고, 억압받는 자들이 축복 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환상을 통한 대리만족의 욕구를 채워주었다.

1970-1980년대 들어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마닐라 중심의 대중문화도 서서히 전체 필리핀 군도로 확산되어 갔다. TV를 비롯한 미디어의 확산은 EPS Cycle(Elitist→Popular→Specialized)을 그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Wilson 1995: 16-18), 독립이후만 해도 엘리트들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서구적 대중문화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의 대중들에게까지 보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대중 매체의 확산은 더욱 진척이 되고 있으며, 도서지역 경우에도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3/4이 규칙적으로 TV를 대하고 있다(Kenny 1996). 1996년 현재 필리핀의 TV 방송국은 국영 PTV(Ch4) 외에 민영방송국 5개, 지방중개국 64개가 있으며, 'SKY CATV' 등 40여 개의 CATV사가 운영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1-112). 라디오도 전국 약 90개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약 359개에 이르는 라디오 방송국(249개의 AM방송국, 105개의 FM방송국, 5개의 단파방송국)도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범 아시아 지역의 최초 상업 TV 서비스인 스타(STAR) TV의 영향을 조사한 최근의 한 연구(Chan 1994)에 따르면, 1990년대 초의 상황을 기준으로 아시아 각국의 STAR TV에 대한 정책적 통제는 ① 실질적 억압(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② 규제적 개방(홍콩과 필리핀), ③ 비합법적 개방(타이완과 인도), ④ 억압적 개방(중국)의 네 이념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인 '규제적 개방'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STAR TV에 대하여 개방적이면서도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케이블 네트워크 또는 여타의 미디어에 의해서 STAR TV의 재분배에 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유지한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TVRO—television receive only, 이른바 'dish' (위성방송접시)라 불리는 것—와 SMATV를 통제하는 데 대한 규제가 전혀 없지만, STAR TV를 내보낼 수 있는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운용에 대해서는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글로벌화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자체에서 생산된 문화생산물—그중 상당 부분은 서구 대중문화에 경도된 것이 많다—은 물론이거니와 서구(미국)에서 생산된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구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개방적 수용태도와는 별도로, 1990년대에 들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력이 가해지면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서구적 문화양식에 '동화'되어온 과거의 궤적을 따르는 흐름(즉, 미국화)이 거의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통한 문화적 '통합'의 흐름(따갈로그화)도 일부에서 미약하나마 제기되고 있고, 문화정책도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분적이나마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선회를 문화적 각축장에서의 수세적 방어를 넘어서 문화 정체성의 적극적 모색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2. 타이완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문화정책

### 1) 타이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청의 대외문화개방이 이루어지고 이어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한 뒤 타이완은 일본에 할양되어 1895년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했던 무단정치와는 달리 타이완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형태의 지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식민지배라는 한계는 있지만 부분적이나마 근대화 작업을 진척시키기도 하였다. 타이완에서 독립이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별로 표출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1945년은 타이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해이다.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타이완과 대륙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타이완 사람들인 '본성인' 으로서는 오랜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기대로 국민당 정부를 환영하였지만 국민당 정부의 관리들은 갖가지 부패상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오히려 '본성인' 들을 섬사람이라고 무시해버렸다. 따라서 타이완 주민들의 대륙 본토에 대한 반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1949년 본토에서 패배한 장개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타이완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관리들의 부패를



일소하면서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에 착수하였던 장개석 정부의 통치 방식은 이른바 개발독재의 전형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초의 토지개혁과 농업발전, 그리고 뒤이은 경공업 위주의 내수산업화,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전개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계획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육성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적 배제 전략이 수반되고 있었다(Tien 1993: 제2장).

근래에 계엄이 해제되고 민진당이 출현하면서 타이완의 역사는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당 내에서도 군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 본성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sup>2)</sup> 물론 핵심적인 지위는 여전히 외성인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단 수적인 측면에서는 본성인들의 진출이 돋보이는데, 민진당은 본성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본성인들의 심정적인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민당의 분열로 극적인 승리가 가능했던 민진당 소속인 천슈에이비엔(陳水扁) 대통령은 국민당만큼 안정적인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역사적 다중경험 속에서 타이완은 다양한 문화적 조류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다듬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이완 국립대학의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타이완은 일찍이 네덜란드로부터 미국과 일본의 문화가 범람하기에 이르기까지 원래 여러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 민족성의 측면에서도 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외래문화를 받아들인다거나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2) 10% 내외의 외성인들이 장악하던 타이완에서 이와 같이 본성인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흐름은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장경국, 1980년대의 이동휘(李登輝) 총통 등의 지도자들을 거치며 점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동휘가 주창한 '새로운 타이완인'(New Taiwanes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본성인과 외성인의 구분이 없는 중국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였던 것이 전형적인 보기이다. 그리고 최근 천슈에이비엔(陳水扁) 대통령의 정권장악을 계기로 국민당의 호선(cooptation)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본성인들은 새로운 정치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취해왔다고 느낀다. 혹 이러한 태도가 식민지문화라거나 근본을 잇는 태도라고 비판당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타이완문화는 오랜 옛날부터 이른바 ‘근본(本)’이란 것이 없다.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 그리 나쁠 게 있는가.

이 같은 진술 속에서 두드러진 점은 “근본이 없다”라는 것과 “외래문화 수용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이 모호한 태도는 타이완이 청의 지배를 통해 근세에 중국 역사의 본류적 흐름에 흡수되었으며, 그 후로도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독립이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 본토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타이완의 정체성은 본성인과 외성인들 사이의 잠재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화의 본류적 흐름을 준거틀로 하여 형성되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는 이른바 ‘중국의 뿌리’가 타이완에서 발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타이완의 문화정책과 문화적 지형

독립 후 타이완의 문화정책이 변천된 과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디어와 정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주목하게 된다(Chen 1998b : 11-29). 이는 우선 저널리즘(신문잡지업)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주지하듯이 국민당 정부는 개발독재를 유지하면서 언론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으로 억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보기로, 1960년대 타이완의 TV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집권 국민당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지방 정부, 국민당, 그리고 군부가 세 개 네트워크의 주요한 소유자들이었다. 1970년대에는 TV 프로그램의 내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엄숙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가벼운 오락물로 양분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일련의 사회개혁이 있었지만, 타이완에서 TV는 여전히 연성적 권위주의에 의해서 조작되었다(Chen 1992).

그렇지만 1987년 계엄해제 이후 타이완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이 일어났는데, 금융 자유화·국영기업의 민영화·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미디어 규제의 개혁이 그것이다. 당시 미디어(신문, 라디오, TV 채널 등) 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로 인해서 타이완은 '구속적 국가'(restrictive state)로부터 '규제적 국가'(regulatory state)로 전이되었다(Chiang 1997). 최근 타이완의 영화가 발전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sup>3)</sup> 아울러 인기가 있는 지하 케이블 TV 시장은 마침내 케이블 TV법이 제정된 1993년에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당시 타이완의 이 같은 미디어 규제 개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개혁은 첫째, 정당성 위기에 대한 국민당 국가의 반응이었고, 둘째 경제와 사회로부터 국가 영역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셋째, 이익집단들의 참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한 이것은 국가 자율성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타이완에는 현재 지상파방송국이 3개 있어서 이것을 '3臺'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이다. 그러나 상업방송이라 하더라도 대주주는 국민당, 타이완성(臺灣省)정부, 군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에 가깝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다. 예를 들면, 외국 프로그램의 비율은 30% 이하, 오락 프로그램은 50% 이하 등 세세한 규칙이 매우 많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재미없게 만들어 케이블 TV가 타이완에서 폭발적으로 보급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방송동향과 분석」 1997/1/31). 그런데 지상파에서는 1993년까지 일본 프로그램의 방송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 일본 프로그램을 볼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최근 케이블 TV가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의 시청률이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지상파방송국이 시청률을 얻을 수 있는 일본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구했기 때문에

3) 대표적인 보기가 차이밍리앙으로서 그는 1994년 '애정만세(愛情萬歲)'를 통해 베니스영화제의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감독이다.

일본 프로그램의 방영은 1993년 말에 해금되었다.

1997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다채널화가 가장 진전되어 있는 타이완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80%가 이른바 '제4臺'(3개 있는 지상파 채널에 대해 4번째 채널이라는 의미)로 불리는 케이블 TV를 봄으로써 시청률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이고 미국의 그것보다도 높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블 TV는 타이완에서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지하의 매체로서 처음 출현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케이블 TV는 처음부터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는 처음 나올 때부터 인기를 모았는데, 이것의 이유로서 케이블 TV가 풍부하고도 다양한 오락과 정보를 제공한 것을 들 수 있다. 미디어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관점에서 타이완의 케이블 TV를 분석한 한 연구(Chen 1998a)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타이완의 케이블 TV 시장(산업) 발전은 미국의 그것과 동일한 경로를 따라 왔다는 것이다. 즉, 타이완의 케이블 TV 산업은 소유 집중, 산업 합병 등의 경향을 따라왔다. 특히 타임워너사(Time Warner Cable International)와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홀딩사(United International Holdings)와 같은 국제적인 사업자들이 타이완 시장에 한 때 진출했다 철수했지만, 타이완이 통신/다채널 TV 분야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내걸게 된 최근 상황에서 케이블 시스템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다른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와 새로운 유럽의 사업자들이 타이완의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줄지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방송동향과 분석」 1999/2/28). 이로써 자본화와 비대화는 미국과 타이완의 케이블 TV 산업에서 필연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한편, 수많은 좌절을 반복하며 1997년 5월 31일 입법원을 통과한 타이완의 공공텔레비전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텔레비전(公共電視臺 = 公視)이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방송동향과 분석」 1997/10/30). 타이완의 공시(公視)는 일본의 NHK처럼 국민의 수신료에 의해 성립되는 경영 패턴이 아니라, 미국의 PBS 형에 가깝다. 이는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게 되지만, 점차 일반기업, 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해 경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쨌

든 타이완에서 최근 공공텔레비전법의 통과는 과거 35년간 타이완의 텔레비전이 '당·정·군'의 어용기관으로서 참된 상업방송국이 될 수 없었던 제도로부터 탈피함을 의미한다. 타이완의 시청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타이완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의 STAR TV(5채널), 중국 중앙 TV, 일본 NHK 위성 제1, 제2 등이다. NHK가 위성방송을 시작한 것은 1987년 무렵으로 일본어가 가능한 타이완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파라볼 안테나를 설치하여 NHK를 수신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타이완에서는 위성방송의 직접 수신은 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성방송은 케이블 TV로 재송신되고 있으며, 이것이 화질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경우 1994년 현재 인도와 함께 아시아에서 STAR TV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나라인데, 타이완에서 STAR TV는 SMATV 또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이완에서 1993년 8월 케이블 TV를 관장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타이완은 이제 홍콩이나 필리핀과 같이 '규제적 개방'의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로부터 현재 STAR TV의 중국어(Mandarin) 채널이 타이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전지역에서 STAR TV를 보는 시청자들 중 약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점에 착안한 STAR TV가 영어라는 언어 장벽을 시청자들이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완의 경우 자신의 여러 채널 중 하나를 '중국어' 채널로 만든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이완에서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들의 홍수 속에서 중국어로 만든 외국(홍콩, 중국, 일본 등) 제작물들이 상당수 타이완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하여 이것들을 수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타이완에서 STAR TV가 괄목할 만한 침투를 하게 된 데는 이 STAR TV 프로그램이 정부가 통제하는 기존의 세 TV사보다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리고 STAR TV의 성공의 또 다른 이유는 세 공영 TV사가 일반적으로 지루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적이거나 혹은 공공 사안에 관한 것만을 방영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늦은 밤의 황금 시간대에 STAR TV

는 오락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Fang 1992).

총괄적으로 평가해보자면,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체제 아래에서 규제적 문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대중매체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화나 TV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서구 대중문화가 유입되기는 하였으나,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중국적 뿌리를 복원하려 하였던 타이완에서 그 파급력은 그리 강하다고 볼 수 없었다. 사회통합과 질서에 역기능적이라고 판단되는 서구의 자극적 문화상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일본의 문화상품들이 타이완 사람들의 정서를 파고들기도 하였다. 물론 1987년 계엄해제 이후,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구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기회는 대중매체의 발전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타이완은 '아시아의 미국화' 명제와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IV. 문화 정체성과 서구 대중문화: 필리핀과 타이완의 비교

##### 1. 필리핀의 서구 대중문화와 정체성의 위기

###### 1) 서구 대중문화와 필리핀의 융합·동화적 문화변용

이미 지적했던 바, 필리핀에서 서구의 대중문화는 식민지적 심성과 연결되어 용이하게 수용되어 왔다. 특히 라디오 드라마의 위력은 대단히 강한데 왜냐하면 영화, TV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대중들에게 '말하는 상자'는 유력한 매체이며, 드라마는 전통적인 구비문학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전통적인 것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멜로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미국 것을 모방한 것으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최근에 TV의 보급이 늘면서 라디오의 드라마는 다소 그 비중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드라마를 대신해서 영어나 따갈로그어로 가사가 번역된 서구 대중음악이 많이 방영되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여전히 라디오에 익숙하다. 라디오, 특히 FM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블루스, 록, 재즈 등 서구 대중음악은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 처럼 다가서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비트가 강한 음악이 미국을 통해 필리핀에 직수입된 것도 이러한 익숙함을 반영해주는 보기이다.

한편, 필리핀의 멜로 드라마는 일상적으로 중류 또는 하층 계급사람들을 겨냥하여 기획되었다. 그러나 TV의 등장에 의해 세련된 외국물과 국산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에 만족하였던 상류 및 중상계층의 사람들을 TV영화, 버라이어티 쇼, 그리고 TV의 멜로 드라마에도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 인기가 있는 라디오의 연속물은 곧 TV물로 제작되었다. 'Gulong ng Palad' (운명), 'Ilaw ng Tahanan' (가정의 등불), 'Kahapong Lamang' (바로 어제) 따위의 드라마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우선 흥미가 있으며, 라디오에서 할 수 없는 감각기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마닐라 수도권에 있는 5개의 TV국에서는 9개의 멜로 드라마가 아침 11시부터 방송된다. 오후가 되어도 되풀이해서 재방송되고 눈물을 흘리도록 자극하는 오래된 따갈로그 영화나 미국 멜로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선호도도 대단히 크다. 이미 19세기 말에 스테이지에서 스크린으로 시선을 끌었던 필리핀에서는 독립이전부터 영화산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1950년대에 들어서 전쟁의 폐허로부터 가장 빨리 복구된 것도 영화산업이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침체에 따라 영화산업이 다소 침체하고 1970년대에는 마르코스 정권의 필리핀화 정책이 시행되어 속류적 서구 대중문화에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억눌린 자들의 설움을 위안해 줄 중요한 수단이 영화였다. 멜로물은 물론이거니와 무술, 액션 영화도 많이 상영되었고, 할리우드 영화의 모사품들도 많이 제작되었다. 환상을 주식으로 먹으며 좌절의 고통을 감내하던 필리핀인들에게 영화가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활용되

었고, 지배층은 이를 사회적 안전판 장치로 삼았다(박희 1999).

그 결과, 서구 대중문화가 만들어준 필리핀의 문화적 지형은 현실 그 자체보다는 현실에 대한 관념에 의해 지배되는 편이 강하다. 물론 라모스 정권이 등장하고 이어 에스트라다가 등장하여 그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식의 확립을 바라는 엘리트층과 일반대중의 의식은 극히 격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식민통치와 계엄(독재)을 통해 유지된 억압과 체념의 일상화가 피지배자의 *아비투스(habitus)*로 작용하였던 셈이며,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필리핀은 동화와 융합의 새로운 문화소를 만들어온 것이다.

## 2) 필리핀의 대중매체 선호 프로그램

이미 살펴보았듯이 필리핀에서 라디오와 TV는 상당히 흡인력을 갖는 대중매체이다. 물론 여론 지도자들은 TV, 신문, 라디오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군도라는 특성 때문에 라디오가 대단히 유력한 매체의 역할을 한다. 필리핀 MBC 라디오 방송국의 호세 따룩(Jose Taruc)은 대중매체의 비중과 청취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sup>4)</sup>

TV, 신문, 라디오 가운데 가장 유력한 매체는 라디오이다. 보유자가 100%라고 할 수 있는데 군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결정적이다. 신문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별로 구독하지 않는다. 우리 방송국에서는 따갈로그어로 방송하는데 현재 필리핀에서는 따갈로그어와 영어가 혼합된 속칭 Taglish도 많이 사용된다.

FM 방송은 대개 뉴스와 음악을 방송하는데, 서구물 70%, 국내물 30% 정도로 구성된다. 물론 기회를 열어놓고 청취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편이다. 필리핀

4) Jose Taruc과의 심층면접 자료.



에서 서구와의 극렬한 문화적 충돌은 없었다. 젊은이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한다. 결국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진술은 방송 자체의 서구적 편향과 청취자들의 서구화된 취향을 보여준다. “서구와의 극렬한 문화적 충돌은 없었다”는 표현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지적에는 일종의 판단유보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한다”라는 표현과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은 필리핀 사회가 이미 식민지배와 대중문화의 침투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동화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표 1〉 필리핀 대학생들의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지수서열화)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				
프로그램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팝송	93	5.25	.996	1
클래식 음악		3.45	1.639	4
스포츠		2.23	1.320	6
록음악		3.68	1.676	3
재즈		3.70	1.502	2
뉴스		2.76	1.322	5

주 1)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하여 지수화한 값의 평균치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리핀 국립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여섯 가지에 대해 그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1〉은 이를 확인한 결과를 통계로 처리한 것이다. 먼저, 각 프로그램 항목의 응답은 1위에서 6위까지 나타난다(1위에 대해서는 6점 부여, 6위에 대해서는 1점 부여). 그런데 통계표에는 담지 않았지만 계층귀속의식(상층, 중간층, 하층으로 코드변경)과 주요 성장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출신) 별로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의 선호도는 팝송(5.25점), 재즈(3.70점), 록음악(3.68점), 클래식(3.45점), 뉴스(2.76점), 스포츠(2.23점)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팝과 록음악, 그리고 재즈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서 감각적이고 미국적인 정서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TV는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따룩의 설명에 따르면 TV는 약 70% 정도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는 필리핀의 계층구성을 대략 5%의 상층, 15%의 중간층, 80%의 하층으로 구분하고 TV시청이 상층에서 점차 하층으로 확대된다고 지적하였다. 10-15년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현재는 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테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률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sup>5)</sup>

그런데 TV 선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네 가지 영역에 순위를 부여하라는 주문을 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점수 부여 방식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이며 최고점수는 1위의 경우 4점, 4위의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응답자들의 전체 평균값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3.19점, 뉴스·정보 프로그램이 2.98점,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1.92점, 스포츠 프로그램이 1.9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청률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으로 보아 TV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시켜 보면, 전체 순위는 영화(5.54점), 코미디(4.23점), 만화(3.49점), 드라마(2.69점), 버라이어티쇼(2.68점), 게임쇼(2.40점)로 나타나고 있어서 선호 프로그램이 영화와 코미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선호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1996년 10월-12월까지 모리스(Duncan Morris)가 필리핀의 ABS-

5) Jose Taruc과의 심층면접 자료.

CBN2, PTV4, ABC5, GMA7, RPN9, IBC13, SBN21, RJTV29, CTV31을 대상으로 모집단 771만 3000명의 TV 시청 행태를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김광옥 1997: 339). 그의 연구에서는 1인당 평균시청 시간 124분 가운데 드라마가 37분, 영화가 19분, 뉴스·시사프로 13분, 스포츠 12분, 버라이어티쇼 11분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화와 코미디 프로그램에 비해 현격하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신분과 역할이 지속적 시청관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필리핀 대학생들의 TV 선호 프로그램(점수화)

TV 선호 프로그램			선호하는 TV연예·오락 프로그램		
프로그램	N	평균 <sup>1</sup>	프로그램	N	평균 <sup>2</sup>
연예·오락	93	3.19	드라마	80	2.71
			코미디		4.24
스포츠		1.90	영화		5.53
문화·교양		1.92	버라이어티쇼		2.66
			만화		3.44
뉴스·정보		2.98	게임 쇼		2.44

주 1)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지수화하여 환산한 것임.

주 2)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지수화하여 환산한 것임.

### 3)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태도와 정체성의 위기문제

필리핀에서 서구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고, 서구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리의 문화접변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의 경우는 문화 동화의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이 지나친 미국화의 증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 인류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Pertierra 1997: 3-4).

나로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웠다. 언론에서는 영어

가 판을 친다: 팝뮤직은 미국 것이거나 미국 팝뮤직에 의해 영감을 얻은 것이다: 미국제라면 어떠한 것이든 위세를 갖게 되며, 국산보다 선호되어 '우리의 식민지적 심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나게 만든다: 라디오 아나운서는 가능한 한 미국인처럼 발음하려고 노력한다: TV는 미국산 쇼프로를 방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색슨화되어 Manuel은 Manny로, Claro는 Clark으로, Juan은 Johnny로, Gregorio는 Greg으로, Olivia는 Olive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스페인 지배 속에서 강제로 이식된 정체성, 곧 성명마저 미국식으로 수정되는 셈이다. 결국 그람시(A. Gramsci)의 표현을 따르자면 스페인의 강압적 문화접변 과정에서 받았던 강제적 지배는 미국에 의해 '헤게모니', 곧 '동역에 의한 지배'의 방식으로 대체되었고 자발적 문화접변 경험은 식민지적 심성의 착색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표 3〉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필리핀의 선호수준(관측도수)

구분	선호여부	할리우드 영화 선호여부		총합계
		선호	비선호	
계층의식	상 층	10(100.0%)	0 (0.0%)	10(100%)
	중간층	62 (92.5%)	5 (7.5%)	67(100%)
	하 층	10 (83.3%)	2(16.7%)	12(100%)
총 합 계		82 (92.1%)	7 (7.9%)	89(100%)

$$\chi^2=2.151, p=.341$$

이러한 상황은 〈표 3〉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9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층별 할리우드 영화 선호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할리우드 영화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식민지적 심성의 착색이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래에 인용한

필리핀 국립대학 영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녀 교수들의 자기 고백은 이러한 할리우드 영화 선호도가 단순한 여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나는 성장과정에서 미국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미국적인 것을 훌륭한 것으로 생각해 왔고 그것을 갈망하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는 생각을 많이 수정한 편이다. 그래도 대학 외부에서는 생각이 다시 변한다. 말하자면 문화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sup>6)</sup>

... 나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할리우드 배우들에 대해 동경심을 품고 자랐다는 점에서 나는 필리핀 젊은이들의 전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전통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고, 따라서 나는 필리핀인이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도 일상적으로는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오히려 내가 필리핀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sup>7)</sup>

〈표 4〉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필리핀)

	R <sup>2</sup>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1.445	.447		3.231	.002
미제상품 선호경향	.218	.280	.109	.265	2.575	.012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지화		.286	.093	.318	3.087	.003

종속변수: 미국의 대중문화에 의한 개인주의화 경향

6) 필리핀 국립대학 영문과 교수 A(여성)와의 심층면접 자료.

7) 필리핀 국립대학 영문과 교수 B(남성)와의 심층면접 자료.

따라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대중문화가 어떻게 필리핀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할리우드의 대중문화라는 문화상품과 미국산 소비상품의 선호도가 개인적 행위양식과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4>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개인 중심주의화가 진행되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찬성도 최고 5점, 최저 1점 기준으로 측정된 결과 평균은 3.46으로 나타났고, “할리우드에 의해 문화식민지화 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이 3.43이었으며, 그리고 “미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상품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3.68로 각각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찬성도가 높다. 그런데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주의화’를 COL, 미제상품 선호경향을 PER, 그리고 미국의 대중문화에 의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각각 IND라고 하면 회귀식  $IND = 1.445 + 0.28PER + 0.286COL$ 이 되며, 회귀방정식은 0.05 유의수준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21%이다. 이는 미제상품 선호경향과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 식민지화 경향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미국의 대중문화에 의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인정하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필리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대중문화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할리우드의 대중문화를 반영하는 미제상품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문화적 변용을 통해 서구중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와 태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2. 타이완의 서구 대중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 1) 서구 대중문화와 타이완의 통합적 문화변용

주지하듯이, 타이완은 미국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겪지 않았지만,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은 타이완의 존립에 정치·군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더구나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미국의 영

화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보면, 타이완에서도 미국 대중문화는 상당히 높은 침투력을 보이고 있는 편이라고 해도 어긋난 지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적했던 바, 타이완에서는 오랫동안 규제적 문화정책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영화나 TV·라디오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서구 대중문화가 유입되기는 하였으나,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중국적 뿌리를 복원하려 했던 타이완에서 그 파급력은 다른 아시아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표 5>를 보면 필리핀과는 다른 타이완의 이러한 문화적 조류가 탐지된다.

〈표 5〉 타이완의 제작국 기준별 대중문화 선호도

영 화			대 중 음 악		
타이완산	미국산	동시 선호	타이완산	미국산	동시 선호
2	29	47	13	14	49
(2.67%)	(37.2%)	(60.3%)	(17.1%)	(18.4%)	(64.5%)

먼저, 영화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불과 2.67%만이 국산영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37.2%의 사람들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선호하고 있었다. 더구나 국산과 미국산을 동시에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60.3%에 이르는 것을 보면 할리우드 영화가 타이완에서 광범위하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국내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17.1%로서 미국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18.4%의 사람들에 비해 크게 적지 않다. 그리고 양국의 대중음악을 동시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64.5%로 영화에 비해 수치가 높아지지만 이것이 곧 미국 대중음악에 대한 편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로써 타이완은 서구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패턴이 '통합적 형태의 문화변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이완에서 광고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완의 황금시간대 TV 상업광고를 심층 분석한 한 연구(Chem 1995)

에 따르면, 이 광고들의 메시지는 동양적 가치(예: 사회·집단 중심적) 보다는 서양적(미국적) 가치(예: 개인 중심적)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다. 현재 타이완에서 미국계 광고회사가 타이완의 광고업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고 산업에서 세계화를 향한 일반적 경향과 관련하여 타이완 TV 광고의 '미국화'는 뚜렷이 감지될 수 있다.<sup>8)</sup>

그렇지만 현재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의 드라마를 보면 그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1984년 당시만 해도 홍콩의 드라마가 타이완의 '3臺' 지상파 상업방송의 국내 프로그램을 해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금지되었고(Chen 1992: 67), 신문과 같은 미디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진 뒤에도 유독 TV에 대해서만은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결과 지상파 TV가 서구 대중문화에 대해 아직도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성 역할(sex role)의 스테레오타입은 타이완의 직업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ung 1995).

더구나 지상파 TV의 경우에는 장·노년층이 즐기고 청소년들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케이블 TV를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sup>9)</sup>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대중문화이며, 미국 중심의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도 일본을 통해 여과된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정서적 공간거리가 멀지 않은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타

8) 1995년 기준으로 타이완에 있는 최고의 광고회사들 중 약 60%가 미국과 합자회사이거나 미국 소유이다. 그런데 이 경우 TV 광고회사가 미국 소유이거나 또는 미국과 합작으로 운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타이완 광고회사의 광고 내용보다 훨씬 더 서양적(미국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나타난다.

9) 현재 아시아에서 다채널화가 가장 진전되어 있는 곳은 타이완으로 케이블 TV의 보급률은 80%에 달하며 일반 가정에서 80개에 가까운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타이완의 케이블 TV에는 일본 프로그램 전문채널이 많을뿐더러 일반 채널에서도 일본 프로그램이 상당히 방영되고 있다는 점이다(「방송동향과 분석, 1999/1/31」. 타이베이 대표적 케이블 TV를 예로 들면, 뉴스 전문채널이 6개, 스포츠 전문채널이 4개, 애니메이션 3개, 일본 프로그램 전문채널이 5개나 있다.



이완이 아시아적 정서, 특히 중국적 뿌리와 관련이 있는 타이완적 정서를 유지하면서 서구 대중문화를 자국의 틀에 통합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2) 타이완의 대중문화와 선호프로그램

타이완에서 대중매체의 비중은 선진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라디오에서 점차 TV로,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블 TV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언급한 EPS 사이클의 진행과정이 타이완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라디오의 경우에는 영상을 통한 시사극과는 무관한 음악과 뉴스 및 정보 서비스의 제공역할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6>은 라디오의 선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6> 타이완 대학생들의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지수서열화)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				
프로그램	N	평균 <sup>1</sup>	표준편차	순위
팝송	81	4.65	.996	1
클래식 음악		4.53	1.639	2
스포츠		1.88	1.320	6
록음악		2.82	1.676	5
재즈		3.73	1.502	3
뉴스		3.47	1.322	4

주 1)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하여 지수화한 값의 평균치임.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을 상대적 비중도에 따라 지수화하여 최저 1점부터 최고 6점으로 등급화해 보면, 팝송(4.65점), 클래식(4.53점), 재즈(3.73점), 뉴스(3.47점), 록음악(2.82점), 스포츠(1.88점)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점은 앞에서 분석한 필리핀에 비해 클래식 음악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지고 이에 비해 록음악의 비중이 뉴스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타이완의 젊은이들은 필리핀에 비해 비교적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덜 감각적인 취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타이완 대학생들의 TV 선호 프로그램(점수화)

TV 선호 프로그램			선호하는 TV연예·오락 프로그램		
프로그램	N	평균 <sup>1</sup>	프로그램	N	평균 <sup>2</sup>
연예·오락	77	3.08	드라마	80	3.83
스포츠		1.66	코미디		2.19
문화·교양		3.10	영화		5.83
뉴스·정보		2.17	버라이어티쇼		1.87
			만화		4.40
			게임 쇼		2.93

주 1)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지수화하여 환산한 것임.

주 2)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지수화하여 환산한 것임.

이러한 취향은 TV 선호 프로그램에도 반영되고 있다(〈표 7〉 참조).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지수화하여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문화·교양에 대한 선호 지수가 3.10점으로 연예·오락 프로그램 선호지수(3.08점)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뉴스·정보(2.17점)와 스포츠(1.66점)가 잇고 있다. 그렇지만 타이완의 TV에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지수화하여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부여한 표 7의 결과를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선호 프로그램은 영화로서 무려 5.83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화가 4.40점, 그리고 드라마가 3.83점이어서 게임 쇼(2.93점), 코미디(2.19점), 버라이어티쇼(1.87점)와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국 연구 대상이 되었던 타이완의 청년들은 이지적이어서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또한 영화와 만화처럼 환상적인 내용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감상적인 취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태도와 문화적 정체성

타이완의 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중국적 뿌리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타이완의 대중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한 한 연구(Chen 1998)에 따르면, 공식적인 문화는 역사 교과서를 통해 강조되어 왔지만, 대중문화의 조류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 나타나며, 1945-1960년대의 기간에 타이완의 새로운 통치자는 본성인과 중국 대륙에서 망명은 외성인들을 위해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과 관련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이 타이완의 문화적이고도 법적인 대표성을 갖는다"는 당시 국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데 강하게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타이완의 작가들은 부분적이거나 타이완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과거를 찾아 타이완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고안해 내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영화는 중국적 뿌리를 재강조하였고 역사 교과서들은 중국의 과거에 초점을 모았다. 물론 1980년대에 들어와 타이완의 기억은 중국적 기억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타이완의 새로운 영화와 정치·환경 소설들이 타이완의 기억을 공중의 의식의 중심에 점차 불러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중국 중심적인 역사 교과서가 읽혀졌다. 그 후 1990년대에 와서 타이완 본성인들은 숨겨진 역사를 찾기 시작했고, 주변 문화가 지배 문화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타이완인들은 여전히 중국적 기억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 타이완 사회의 지향모델로서 중국적 기억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타이완의 새로운 경험을 의미 있게 해주는 상징적 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타이완인들이 동일시하는 전통의 출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 때문에 서구 대중문화의 수용과정에서도 타이완의 정체성은 어김없이 그 관성력을 드러냈다. 물론 타이완의 젊은이들에게서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앞에서 보았듯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며, 특히 규제개혁 조치 이후 위성방송이 케이블을 타고 일반 가정에 파고들면서 타이완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서구 대중문화에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

국 중심의 서구 대중문화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영화에 대해 타이완인들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필리핀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그 선호도가 떨어진다. <표 8>에서 보면 할리우드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70.1%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29.9%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앞의 <표 5>에서 국산영화 선호도가 2.67%, 미국영화 선호도가 37.2%, 동시선호가 60.3%이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동시선호 응답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표 8>의 결과는 <표 5>의 동시선호 응답자들이 미국영화 32.9%, 국산영화 27.3%로 나누기 때문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계층별(귀족의식)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표 8>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타이완의 선호수준(관측도수)

구분	선호여부	할리우드 영화 선호여부		총합계
		선호	비선호	
계층의식	상 층	17(73.9%)	6(26.1%)	23(100%)
	중간층	35(70.0%)	15(30.0%)	50(100%)
	하 층	2 (50.0%)	2 (50.0%)	4 (100%)
총 합 계		54(70.1%)	23(29.9%)	77(100%)

$\chi^2 = .931, p = .628$

<표 9>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타이완)

	R <sup>2</sup>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도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2.381	.473		5.036	.000
미제상품 선호경향	.045	.155	.128	.141	1.207	.231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지화	.171	.146	.136	.136	1.165	.248

종속변수: 미국의 대중문화에 의한 개인주의화 경향

한편, 타이완의 경우에는 미국산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수용자의 태도가 필리핀과 달리 상당히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리우드의 대중문화라는 문화상품과 미국산 소비상품의 선호도가 개인적 행위양식과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필리핀과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표 9>에서 보면 ‘미제상품 선호경향’(PER)이나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주의화’(COL)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대중문화에 의한 개인주의화 경향’(IND)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며(설명력 4.5%), 회귀방정식도 0.05 유의수준에서 의미를 갖지 않는다.

### 3. 필리핀과 타이완의 서구 대중문화 수용패턴 종합비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필리핀과 타이완은 식민지 경험의 차이, 문화정책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필리핀은 400여 년에 이르는 장기적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를 담당했던 국가들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각각 침병의 위력을 발휘했던 서구의 스페인과 미국이었다. 또한 필리핀의 문화정책은 서구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형태로 유지되었고 미국의 대중문화도 거의 여과되지 않고 직수입되는 편이다.

이에 비해, 타이완은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중국 본토와는 분리되어 있었어도 중국의 본류적인 문화적 흐름이 차단되지 않았던 또 다른 세 개의 중국(the three Chinas)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식민지 경험도 서구가 아닌 일본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단지 중국본토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전면에서 부상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미국과의 접촉은 전략적 선택으로 한정된 것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타이완은 문화정책도 본성인들의 잠재적 거부감을 가로막고 중국 본류의 전통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과 타이완 사이의 뚜렷이 대비되는 이러한 조건들은 대중매체의 프로그램 선호도 차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미 지적했듯이, 라디오의 청취 관행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팝송, 록, 재즈와 같은 서구의 대중음악들을 대단히 선호하는 데 비해, 타이완은 비교적 비트가 강한 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하며, 클래식 음악을 훨씬 더 선호하였다. 타이완에서 국산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서구 대중음악에 못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나타낸다.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리핀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1위로서 3위인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지만, 타이완은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1위로 나타나서 미세하나마 연예·오락 프로그램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시청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V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필리핀은 영화를 가장 선호하여 타이완과 같은 추세를 보이지만 2위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필리핀이 코미디, 타이완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타이완은 국산영화보다 미국의 영화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국산영화에 대한 선호도도 필리핀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할리우드 영화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표 10)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수준은 .000에 이르고 있어서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표 10〉 국가별 할리우드 영화 선호도

		할리우드 영화 선호여부		합계
		선호	비선호	
국가	필리핀	84(92.3%)	7(7.7%)	91(100%)
	타이완	54(70.1%)	23(29.9%)	77(100%)
합 계		138 (82.1%)	30 (17.9%)	168 (100%)

$$\chi^2 = 13.986, p = .000$$

이러한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구의 대중문화가 두 나

라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 '미제 상품 선호경향',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t-test의 결과가 <표 11>이다. 물론 앞에서 이미 개략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지만 두 나라의 차이가 우연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1> 필리핀과 타이완의 서구(미국) 대중문화 수용태도 비교(t-test)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	국가	N	평균 <sup>1</sup>	p-value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 (개인 중심주의, 물질주의 등)	필리핀	84	3.46	.122
	타이완	76	3.22	
미제 상품 선호경향	필리핀	88	3.68	.000
	타이완	82	3.13	
할리우드에 의한 문화식민지화	필리핀	93	3.43	.000
	타이완	83	2.07	

주 1) 평균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중립적 태도의 기대평균은 3점임.

먼저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예로서, 물질주의적 가치의 심화, 공동체적 결속이나 가족적 연대의 파괴, 소외된 이기적 세대의 성장 등)에 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양국의 대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의 평균은 3.46점이고 타이완의 평균은 3.22점으로서 앞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4점) 혹은 매우 동의(5점)한다는 비율이 필리핀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6% 타이완은 38.1%에 달했다.

다음으로, “미국제 상품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필리핀의 평균은 3.68점으로 나왔고, 타이완의 평균은 3.13점이어서 일단 양국 모두 미국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값(3.0)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측면은 필리핀과 타이완 양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필리핀에서 타이완보다 한층 높은

미국제 상품 선호 경향이 뚜렷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와 문화'의 상호 관련을 증시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필리핀에서 경제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브랜드가 갖는 매력은 높을 것이 기정 사실이고, 따라서 필리핀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미국제 상품 선호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이 할리우드에 의한 식민지화 곧, 미국의 문화적 식민지화가 되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양국의 대학생들은 그 어떤 질문들보다도 한층 대조적인 답을 하였다. 즉, 필리핀의 경우 평균이 3.43점인 데 반하여 타이완의 경우 평균이 2.07점에 불과하였고 이들 사이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필리핀은 자국이 '미국 할리우드의 식민지화'가 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경우는 '미국 할리우드의 식민지화'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지적했던 바 필리핀이 동화·융합적 문화접변의 사례인 데 비해 타이완은 통합적 문화접변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지지해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V. 결론: 평가와 전망

고정불변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문화도 인접하는 문화요소와의 접변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제와 문화의 복합적 상호작용력은 이러한 접변과정이 '대립'과 '경쟁', 그리고 '절충'의 형태를 띠도록 만들기 마련이다(P. Du Gay 1997). 필리핀의 경우는 장기간의 식민지 경험과 대외 개방형 문화정책이 지속된 결과 서구의 대중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 반응을 나타내며, 심지어 자기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접변과정에서 베리가 지적한 '동화'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중국 본토와의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며 타이완을 지배했던 외성인 중심의 국민당 정부가 유지했던 규제적 문화정책은 타이완 본성인들에



게도 중국적 뿌리를 각인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이후 서구 모더니즘의 일방적 수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1970년대의 향토문화 논쟁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타이완의 노력은 서구 이념의 세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타이완은 필리핀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문화접변과정에서 베리가 지적한 '통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대비적 흐름 속에서도 필리핀과 타이완에서 각기 다양한 문화양상들의 각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불가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의 충격에 직면한 필리핀과 타이완 양국에서 '집합적 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조류들이 감지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크게 보아 세 가지 문화적 조류—①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 지배가 남긴 가톨릭의 라틴 문화, ② 앵글로색슨 문화인 미국의 식민지적 유산 및 자본주의와 결합된 서구(특히 미국) 대중문화, ③ 전통적 가치와 신생의 문화적 민족주의—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살폈듯이 라틴문화는 저변에 많이 융해되어 '집합적 기억'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sup>10)</sup> 그러나 한가지 흥미 있는 점은 필리핀의 외래 문화 수용과정에서 서구 대중문화의

10) 이와 관련하여 1999년 2월 현지조사에서 심층 인터뷰한 림 교수(Prof. Lym: 필리핀 국립대, 매스미디어 전공)는 필리핀의 '미국화'를 이미 기정사실로 보았고, 본 연구팀이 필리핀 국립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1999. 2. 12)에 참석하였던 동대학의 한 사회학자(Garcia Dungo) 역시 "이민간 필리핀계 미국인은 주류(主流) 사회에 동화(同化)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행'은 많은 '필리핀인의 꿈(Filipino Dream)'으로서 필리핀인들은 현재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필리핀 학자들은 미국 대중문화 수용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식민지 유산 같은 역사적 경험 외에 '미국식 교육', '가정에서 미국적인 것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취급되고 열망되는 현상',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이 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미국에 간 필리핀 이민자들의 영향',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브랜드', '미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자유의 땅이라는 이미지 제공' 등의 요인을 강조한 바 있다.

‘토착화’(indigenization) 시도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발레의 ‘필리핀화’를 위해 창작된 ‘이고로트’(Igorot: 1987년 필리핀 안무가 Agnes Locsn이 만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비동양적’(non-Oriental)이기는 하지만 ‘필리핀적인 것’을 체현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려 하고 있는 것이 그 보기이다(Ness, 1997). 또, 미국화의 상징으로 지적되는 맥도날드가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인들의 기호에 맞춘 ‘졸리비’(Jollibee)의 인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미국의 ‘새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를 모방하여 필리핀 스타일로 바꾼 ‘바티보트’(Batibot)라는 어린이 교육용 쇼프로그램이 따갈로그어로 방영되어 미국 번안물보다 훨씬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타이완의 경우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세 가지 문화적 조류—① 전통 중국적 본류문화, ② 신생의 민족주의, ③ 자본주의와 결합된 서구(특히 미국) 대중문화—가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타이완에서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와 결합된 서구대중문화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국민당 정부 주도아래 전통 중국의 문화적 본류를 타이완에서 재현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타이완 본성인(本省人)들의 토착문화와 결합된 민족주의적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중국의 본류 문화와 전면적 마찰을 보일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타이완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통 중국의 본류와 타이완의 토착문화가 길항(扞抗)관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그 관계의 양상도 상호 배타적인 형태가 아니라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 서로 밀면서도 잡아당기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이다(Ogden 1995: 62-65). 더구나 본성인 중심의 민진당으로서는 미국 대중문화의 전면적 침투상황에 맞서기 위해 자기 정체성의 근원으로 작용하였던 중국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결합된 서구 대중문화에 의해 윤색되어 이미 고유의 색채를 잃어버린 듯이 보이는 오늘날의 필리핀에서 역

설적으로 '필리핀화'에 대한 모색이 미미하게나마 감지되고 있는 측면이다. 또 한편 최근 타이완의 사회적 태도 변화에 주목한 한 연구(Wang 1998)에 따르면, 타이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증가된 교육이 예전보다 한층 더 코스모폴리탄적인 대중을 창조하였고, 이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상황 속에서 점차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를 향해 나아가는 조류가 타이완에서도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필리핀과 타이완에서 제각기 형성되기 시작한 이 같은 미미한 흐름들이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적 조류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분쇄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존의 조류들도 처음에는 미미한 조류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필리핀과 타이완은 여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의 각축장으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적 정체성, 서구 대중문화, 필리핀, 타이완, 미국화, 문화정책, 문화접변, 동화, 통합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8/4/4.

『중앙일보』 1997/9/9; 1997/9/22; 1998/11/17.

김광옥. 1997. 『동아시아의 방송과 문화』 서울: 경인문화사.

김성건. 1999. "서구(미국)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지역성의 특징: 중국과 대만사회의 비교." 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필리핀 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타이완 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박 희. 1999. “필리핀의 문화접변과 대중문화.” 『동남아시아연구』제7호.
- 박 희. 2000. “필리핀의 문화적 조직원리와 사회적 자본.” 한국동남아학회 발표논문집.
- 박영은. 1995. “세계화의 지형변화와 문화적 갈등.” 『정신문화연구』 18권 3호.
-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2000. 박찬욱 옮김. 『질주하는 세계』(Runaway World) 서울: 생각의 나무.
- 허 만 · 맥 체 스 너 (Edward S. Herman and Robert W. McChesney). 1999. 강대인 · 전규찬(공역). 『글로벌 미디어와 자본주의』(Global Media: The New Missionaries of Global Capitalism) 서울: 나남출판사.
- 한국방송연구원. 『방송동향과 분석』 1997/1/31; 1997/10/30; 1999/2/28; 1999/8/31.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Cane, Alan. 1996. “Winners in the East Will Inherit the Earth,” *Financial Times*, April 9.
- Chan, Joseph Man. 1994. “National Responses and Accessibility to STAR TV in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v.44(September).
- Chen, Ming-Chu. 1992. “A Critical Investigation of TV in Taiwan: Rethinking the Culture Industry and Ideological Analysis.” M.A.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 Chen, Ping-Hung. 1998a. “The Political Economy of Cable Television: A Case Study of Taiwan’s Electronic Media in Transition.”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Chen, Sheue Yun. 1998b. "State, Media and Democracy in Taiwan." *Media, Culture & Society* v.20 no. 1(Jan).
- Chern, David Shano-yeon. 1995. "Prime-Time TV Commercials in Taiwan and Social Values of Taiwanese Student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hiang, Yao-Kuo Eric. 1997. "Regulatory Reform in Taiwan, 1987-199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Du Gay, Paul(ed.). 1997. *Production of Culture*. London: Sage.
- Eisner, Michael. 1995. "Planetized Entertainment,"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12(Fall).
- Fang, J. S. 1992. "STAR TV Has Penetrated Taiwanese Households." *Hong Kong Economic Journal*(October 9).
- Geddes, Andrew. 1994. "TV Finds No Pan-Asian Panacea," *Advertising Age*, July 18.
- Guerlain, P. 1997. "The Ironies and Dilemmas of America's Cultural Dominance: A Transcultural Approach,"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Vol. 35(June).
- Hall, S. 1991. "The Local and the Global," in A. D. King(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Houndmills/Basingstoke: Macmillan.
- Hung, Ho-Chen. 1995. "The Images of Women on Prime-Time Television in Taiwan." M.A.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 Tien, Hung-mao. 1993. *The Great Transition*. 南天書局有限公司.
- Kenny, James F. 1996. "TV Viewing among TV Set Owners and Non-owners in a Remote Philippine Provinc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0.
- McGurn, William. 1997. "Home advantage: local chain upstages McDonald's in

- the Philippin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s*, vol. 160. Nov. 20.
- Ness, Sally A. 1997. “Originality in the Postcolony: Choreographing the Neoethnic Body of Philippine Ballet. Igorot, the Ballet.” *Cultural Anthropology*, Vol. 12(February).
- Nofuente, Valerio L. 1986. “Portrayals of Life and Reality in Radio and Television Drama.” Virgilio G. Enriquez(ed.). 1986. *Philippine World-View*. Singapore: SEASP.
- Pertierra, Raul. 1997.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and Philippines Ethnography*.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 Petras, James. 1998. “The Americanization of Asia: The Rise and Fall of a Civil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8, No. 2.
- Porter, Michael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Sepstrup, P. and Goonasekera, A. 1994. “TV Transnationalization: Europe and Asia,” *Reports and Papers on Mass Communication*, no. 109.
- Shawcross, W. 1995. “Reaching for the Sky,” *New Statesman & Society*, Vol. 8(March).
- Sotto, Agustin. 2000. “A Brief History of Philippine Cinema.” David Hanan(ed.). 2000. *Film in South East Asia*. Hanoi: L T m-Long Hung,
- Spybey, Tony. 1996. *Globalization and World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 Thompson, E. P. 1966.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 Wang, Alice. 1998. “Taiwan and Social Liberalism: Doomed Marriage or Match Made in Heaven?” *Washington Quarterly*, Vol. 21, No. 4(Autumn).

Wang, G. 1997. "Beyond Media Globalization: A Look at Cultural Integrity from a Policy Perspective,"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 14, No. 4.

Wilson, Stan Le Roy. 1995. *Mass Media/ Mass Culture*. New York: McGraw-Hill.

連 橫. 1983. 『臺灣通史』 商務印書館

瞿海源. 1986. 『臺灣社會與文化變遷』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

李亦園. 1985. 『現代化與中國化論集』 桂冠圖書公司.

姜義華. 1987. 『港臺及海外學者論近代中國文化』 重慶出版社.

朱岑樓. 1981. 『我國社會的變遷與發展』 東大圖書公司.

金耀基. 1992. 『從傳統到現代』 時報文化出版企業股 有限公司.

徐克札. 1998. 『臺灣研究論文集』 第十一集. 華藝出版社.

尉天驥. 1978. 『鄉土文學討論集』 夏潮雜誌社.

黎湘萍. 1994. 『臺灣的憂鬱』 三聯書店.

福永敬(編譯). 1985. 『フィリピンの大衆文化への招待』 東京: 井村文化事業社.

寺見元恵(編譯). 1992. 『フィリピンの大衆文化』 東京: 株式會社めこん.

Abstract

## **Identity Crisis and Western Popular Culture: A Comparison between Taiwan and the Philippines**

Sung-Gun Kim, Hee Park, Heon-Seok Lee, Yoo-Sik Choi & Seon-Joo Hw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empirically Taiwan and the Philippines in terms of identity crisis and acceptance pattern of Western(especially American) popular culture.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has proposed historical experience,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policy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it has suggested acceptance pattern of Western popular culture and cultural transformation as dependent variables.

From this basis, the authors have made a special effort to carry social values survey (in February, 1999)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two countries. The sample size of each country was 120. It was nearly impossible for the authors to choose the representative sample among the population of two countries. So focusing on the young people who are usually the most sensitive to the influence of Western popular culture in developing Asia, the authors have finally matched Taiwanese students with Philippine students. As a result, the authors could fi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eptance pattern of Western popular culture in two countries: 'assimilation' (in J. W. Berry's acculturation framework)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integration' in Taiwan.

**Key words: Cultural Identity, Western Popular Culture, the Philippines, Taiwan, Cultural Policy, Acculturation, Assimilation, Integration**